

## 《古文眞寶》 選文 淺放\*

朴 三 洙\*\*

###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古文眞寶》의 選文에 대한 |
| II. 《古文眞寶》의 選文 觀點      | 《昭明文選》의 影響         |
| III. 《古文眞寶》 選文의 特色과 缺陷 | V. 結 論             |

### I. 머리말

고대 중국은 가히 文學 大國으로 先秦 以來 역대의 詩文 저작이 그야말로 汗牛充棟하고 명편 가작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다. 자고로 文人 學士들은 前代의 명작들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그 문학적 소양을 증진시켜 왔으나, 기실 고대 사회에서는 인쇄 기술의 원시성이나 서적 유통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일반 독자들이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시문의 서책들은 결코 흔치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독서는 상당한 정도의 우연성이나 맹목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으며, 그들이 읽는 작품 또한 옥석이 혼재하여 한 시대나 한 작가의 문학 성취를 대표할 만한 명작을 가려 읽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 고대 독서계의 이러한 현상은 결국 당시 독자들의 독서 효율성 제고에 심대한 장애로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명편 가작 위주의 보다 편리하면서도 有目的的인 독서를 통해 특정한 한 부류나 한 시대의 문학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세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감상을 바라는 자연스런 욕구와 수요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시대 상황적 기운은 마침내 보다 진보적이고 선도적인 有志之士들을 자극하여 이른바 문학 작품의 ‘選集’을 편찬케 함으로써 고대 독서계의 난제를 해결하였고, 나아가서는 인류 사회의 문예 사상적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 하였다. 중국 현대 문단의 대문호 魯迅이 일찍이 이르기를 “문학 작품의 評選本이 후세 문학에 끼친 영향력은 자못 심대한 것으로서 아마도 명가의 전집을 오히려 훨씬 능가할 것이다.”(評選的本子, 影響於後來的文章的力量是不小的 恐怕還遠在名家的專集之上)<sup>1)</sup>라고 한 것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분명 문학 선집의 문학발전사적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한 탁견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고문진보》(이하 《진보》로 약칭함)는 한때 중국 文士들의 애호를 한껏 받았던 詩文選集으로 대략 元初에 편찬되어 元明 시대에 일시를 풍미하다가 明末 이후 점차 쇠미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 내에서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잊혀져 버렸다.<sup>2)</sup> 그런데 《진보》는 일찍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해져 문인 학사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며,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널리 읽혀지면서 양국의 漢學界와 독서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진보》의 전파와 유행에 있어 中外가 선명히 대비되는 이러한 현상은 斯界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에 전해져 읽혀 온 소위 朝鮮刊本(즉, 《詳說古文眞寶大全》)은 현존하는 여타의 제판본과는 또 다른 특징의 수월성을 띤 最善本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데, 고려말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략 650여 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문학적, 학문적 소양을 다

1) 關助吾 等 譯注, 《古文觀止》(第3版 長沙: 岳麓書社, 1991.4.), <代前言>에서 재인용.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 <試論韓國版《古文眞寶》>, 趙福海 等 主編, 《<昭明文選>與中國傳統文化》(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1. 6.) 595-603 쪽 참조.

지는 하나의 ‘敎本’으로 기능해 온 《진보》가 이 시점에서 응당 새롭게 연구되고 정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그것은 곧 지금까지 중외의 독서계나 한학계가 그 敎本的 기능의 활용에 머물러 있으면서 選學的 연구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해 오지 못했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필자는 기실 이같은 견지에서 근년에 들어 《진보》 연구에 작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본고는 조선간본 《진보》를 중심으로 하여 그 選文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와 탐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II. 《古文眞寶》의 選文 觀點

현존 조선간본 《진보》에 수록된 시문 작품은 모두 373편인데, 그 가운데 특히 산문은 130편에 달하여 기타 諸本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元刊本에 비해서는 작품의 수가 거의 두 배나 많다. 그러니까 《진보》는 최초의 成書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流傳되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다수의 작품이 추가로 수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와 같이 《진보》는 전·후대 사람들의 共編 선집인 관계로 全書에서 시종 일관 체계적인 選文 觀點을 견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으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특유의 觀點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문학 작품 선집도 반드시 그 編者의 문학 觀點을 구현하고 있”(任何一種文學作品選本都體現着編選者的文學觀點)<sup>3)</sup>기 때문이다. 《진보》의 選文上 기본 觀點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진보》의 選文 및 編纂 목적은 곧 ‘古文의 독자들에게 다방면의 便益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保育을 바르게 하고 후학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正蒙養而裨後學)<sup>4)</sup> 위한 것이었다. 元末의 鄭本(字, 士文)이 일찍

3) 本社編, 《古典文學三百題》(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5.), 文·36에서 재인용.

이 《古文眞寶敍》에서 이르기를 “언제부터가 六藝 詩·書·易·禮·樂·春秋 六經)를 가르치지 않게 되면서부터 세상에서 初學者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논어》와 《맹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고문을 가르쳤는데, 이는 또한 《논어·學而篇》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곧 글을 배울 것이다.’라고 한 공자의 뜻을 따른 것이다.”(自六藝不講, 而世之誨小學者, 必先以語孟, 而次以古文, 亦餘力學文之意也)<sup>5)</sup>라고 하였듯이 《진보》의 편자는 덕행의 수양을 근본으로 하면서 지식의 학습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긴 孔門의 관점에 입각하여 初學의 교본 및 後學의 독본으로 載道의 ‘고문’ 선집을 편찬하여 사람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다 행하고도 여력이 있으면 곧 글을 배울 것”(行有餘力則以學文)<sup>6)</sup>을 극력 권장하였다. 그것은 곧 “책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들이 어리석고”(有書不教, 子孫愚) “자손이 어리석으면 예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데”(子孫愚兮, 禮義踈)<sup>7)</sup> “세월은 유수같이 흐르고 흐르며, 결코 나를 위해 연장되지 않기”(日月逝矣, 歲不我延)<sup>8)</sup>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보》의 편자는 역대로 저명한 8편의 勸學文을 소책의 권두에 수록 배치함으로써 그같은 뜻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었다.

둘째, 《진보》의 편자는 당송 문학의 古雅之風을 특히 숭상하였다. 《진보》 중의 소위 ‘고문’은 단지 산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운문과 산문을 아울러 가리키는데, 자고이래로 “시가는 《시경》의 작품을 元祖로 삼고, 산문은 양한의 작품을 宗主로 삼았는데, 성률과 駢儷가 흥성하면서 詩文이 병들기 시작하여”(詩以三百篇爲祖, 文以兩漢爲宗, 聲律偶儷興, 而文章病焉)<sup>9)</sup> 결국 外華內空의 유미문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후세의 뜻있

4) 清·吳興祚 《古文觀止·序》.

5) 朴一峰 역, 《古文眞寶》(서울: 育文社, 1991), 卷頭에서 재인용.

6) 《論語·學而篇》.

7) 이상 《古文眞寶·白樂天勸學文》.

8) 《古文眞寶·朱文公勸學文》.

9) 金宗直, <詳說古文眞寶大全跋>, 《古文眞寶諺解》(서울: 고려서림, 1986. 7.), 부록.

는 문사들이 이를 크게 개탄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初唐에 이르러 진 지양, 장구령이 주도한 시가 혁신을 거치면서 古詩가 재차 새로운 생명력을 갖는가 하면 또 唐詩는 그 발전의 방향이 확정되게 되었으며, 그러한 바탕 위에 당시는 마침내 극성기를 맞이하였고, 이백, 두보, 왕유, 백거이 등의 대가를 배출하였다. 이어서 宋代에는 시인들이 唐詩의 성취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또한 새롭게 詩境의 創新을 추구하여 宋詩 특유의 哲理를 중시하고 평이·질박함을 지향하는 新品을 창작하였다. 그리고 산문에 있어서는 中唐에 이르러 한유, 유종원의 산문 혁신을 거치면서 선진 양한의 질박한 載道의 산문을 부흥할 것을 주창하였으며, 이어서 송대에는 구양수를 비롯한 六大家가 韓·柳 고문운동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켰다. 《진보》의 편자는 이와 같은 중국 문학 변천의 맥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송 문학의 고아지풍을 특히 숭상하였으며, 바로 그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당송 시문을 집중적으로 선록하였는데, 詩選集인 前集에서 唐宋詩가, 또 文選集인 후집에서 唐宋文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5%, 88%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훗날 明代에 일시를 풍미한 “文必秦漢·詩必盛唐”의 복고 기풍과는 또 다른 경향으로서 《진보》 편자의 독창성을 엿보기에 충분하다. 일찍이 朝鮮朝 姜淮仲의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一文에서도 또한 “본 선집에 수록된 시문은 선유가 古雅之作을 정선했다 表揚한 것으로 그 뜻을 이어받아 배우고자 하는 선비가 마땅히 높이 받들어 본보기로 삼아야 할 바이다.”(此編所載詩文, 先儒精選古雅, 表而出之, 承學之士所當矜式)<sup>10)</sup>라고 하여 그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진보》의 선문은 가능한 한 全面性을 강구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대개 그 ‘勸學’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곧, 학습자의 ‘學文’을 위한 전면적인 고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중국문학사상 ‘선집’ 특히, 詩文總集의 효시로 평가되는 남조 梁代 소명태자의 《文選》 이후 《진보》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선집<sup>11)</sup>이 속속 출현하였으나, 대부분이 詩選이거나 혹

10) 《古文眞寶詳解》(위와 같음) 부록

11)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략 다음 수 종을 들 수 있으니, 곧 南朝 陳·

은 文選이었으며, 시문의 종합 선집은 결코 흔치 않았다. 반면에 《진보》는 오히려 시문을 兼選한 총집일 뿐만 아니라 前·後 兩集으로 나누어 전집(총 12卷)은 시선집으로, 후집(총 10권)은 문선집으로 명확하게 구분 편찬함으로써 학습자의 讀學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진보》의 편자는 비록 당송의 古雅 문학을 특히 애호하고 중시하여 편중 선록하기는 하였으나, 全書의 選文上 그들은 여전히 나름대로 그 시대와 체제의 전면성을 고려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문체의 명작들을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집의 시가 작품은 위로는 前漢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남송에 이르는 五七言古風 長短篇, 長短句, 歌, 行, 吟, 引, 曲 등의 詩體를 포함하고 있고, 후집의 산문 작품은 위로는 선진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는 북송에 이르는 辭, 賦, 說, 解, 序, 記, 箴, 銘, 文, 頌, 傳, 碑, 辯, 表, 原, 論, 書, 贊 기타 등의 문체를 망라하고 있다. 한편 《진보》의 편자는 기본적으로는 당송의 載道 문학을 지극히 중시하면서도 또한 <北山移文>, <滕王閣序并詩>, <春夜宴桃李園序> 등 약간의 賦나 駢體 작품을 아울러 선록함으로써 결코 자아의 편견이나 아집에 빠지지 않았다. 물론 이는 모두 讀者나 學人이 역대 각종 시문의 변천과 그 특색을 이해하는 데 가능한 한 편의와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진보》의 편자는 또 선문의 典範性을 중시하였는데, 이 역시 그 권학 관념에서 연원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진보》의 편자는 되도록이면 전범적 명편 가작을 선록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종 시문의 전형적인 작품을 공부하여 학습상의 진전이 있는가 하면 또 다수 작가의 대표적 작품을 감상하여 文藝上의 心得이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徐陵 《玉臺新詠》(古詩選本), 唐·殷璠 《河岳英靈集》, 元結 《篋中集》, 高仲武 《中興間氣集》, 姚合 《極玄集》, 韋壯 《又玄集》, 韋穀 《才調集》, 宋·王安石 《唐百家詩選》, 趙師秀 《衆妙集》, 周弼 《三體唐詩》(이상 唐詩選本), 郭茂倩 《樂府詩集》(樂府詩總集), 李昉 《文苑英華》, 眞德秀 《文章正宗》(이상 詩文選本), 姚鉉 《唐文粹》, 呂祖謙 《古文關鍵》, 樓昉 《崇古文訣》, 謝枋得 《文章軌範》(이상 古文選集) 등이다.

《진보》 소책 가운데서 중국문학사상 그 문학 성취와 사상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호매한 기개로 충만된 漢高祖의 <大風歌>, 술기운을 빌려 내심의 정회를 토로한 도연명의 <飲酒>, 드높은 기세에 想像이 넘치는 이백의 <蜀道難>, 亂中에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는 虐政을 폭로한 두보의 <石壕吏>, 구성지고 애절한 가락과 정서가 심금을 울리는 백거이의 <長恨歌>, 憂民之情이 흐르는 義理의 言辭인 소식의 <荔枝歎>, 放逐된 후 피눈물로 쓴 굴원의 <離騷>, 忠君愛國의 전형성을 볼 수 있는 제갈량의 <出師表>, 지극한 효심이 한없이 사람을 울리는 李密의 <陳情表>, 儒學의 보위와 老佛의 배척을 강력히 주장한 韓愈의 <原道>,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가렴주구를 질타한 유종원의 <捕蛇者說>, 백성과 함께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정서를 노래한 구양수의 <醉翁亭記>, 활달하고 낙관적인 인생관을 표현한 소식의 <赤壁賦>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선조의 김종직도 일찍이 이르기를 “漢代와 위진남북조 그리고 당송의 閑靜한 정회를 기탁한 뛰어난 작품들이 다수 이에 모아져 있어 ……후세에 詩文 창작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을 바가 있음을 알게 하였다. 오호라! 이것이 바로 이 한권의 책(《고문진보》)이 ‘진정한 보배인 까닭이로다’(漢晉唐宋寄閑俊越之作, 會萃于是, ……使後之學爲文章者知有所根柢焉 嗚呼! 此其所以爲眞寶也歟!)<sup>12)</sup>라고 하였다.

### Ⅲ. 《古文眞寶》 選文의 特色과 缺陷

《진보》가 高麗末에 우리나라에 전해진 이후 지속적으로 널리 통행된 것은 물론 《진보》 자체가 하나의 善本으로 평가된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조선조에 시행된 外書 구입에 대한 禁令<sup>13)</sup>도 또한 그 원인의 하나였던

12) 주 9)와 같음.

13) 李家源, 《燕岩小說研究》(四版; 서울: 을유문화사, 1984. 1.) 335-342쪽 참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본토에 있어서 《진보》의 통행은 元初에 처음으로 魁本이 간행된 후 오히려 前盛後衰하였다. 다시 말해서 《진보》는 당시로서는 분명 나름대로 일정한 장점과 특색을 띤 選本이었으나, 한편으론 또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선문상의 특색과 결함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먼저 그 특색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訓解의 주석이 덧붙여져 있다. 자고로 중국 고문의 독해는 전문가 여부를 막론하고 누구든 일정한 정도로 그 난해함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註解의 필요성은 가히 절실한 것이었으며, 만약에 주해가 없으면 “독자가 그것을 병폐로 생각하였는데”(觀者病焉)<sup>14)</sup>, 고문 독해에 필요한 字典이나 辭典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옛날에는 일반 독자들이 역대 시문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상세한 주석은 거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진보》에 있어서는 비록 皮本の 원래 면모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正本の 敍文(《古文眞寶敍》)에 의하면 초기의 통행본에 이미 “명확치 않은”(不明) “주석”(註釋)이 있었으며, 林以正의 교정본에는 또 진일보하여 “각 篇마다 그 題下에 작품의 대의를 요약해 附記하였고, 그때 그때 구두 사이에 어려운 자구의 훈해를 자세히 덧붙였다.”(撮大意於篇題之下, 精明訓解於句讀之間)<sup>15)</sup> 이와 같이 《진보》는 초기의 통행본부터 이미 일정한 훈해의 주석이 덧붙여져 있어서 독자나 학습자가 그 시문의 妙意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둘째, 前集의 목록 다음에 소위 <諸賢姓氏事略>을 두어 전·후집에 수록된 작가에 대한 簡介를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을 통독 이해함에 있어서 만약 그 작가의 생애 사적에 대한 事前 지식과 이해가 없다면 필연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진보》의 편자가 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울인 이와 같은 노력은 분명 가상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事略>에 기록된 작가의 성

14) 姜淮仲 <善本大字諸儒箋解古文眞寶誌>, 주 10)과 같음.

15) 주 5)와 같음.

명이나 字號가 본문 각편에 부기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략> 가운데에 일부 작가를 누락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진보》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선본인 까닭에 후세에 추가로 적지 않은 작품이 선록되면서 빚어진 결과가 아닌가 한다.

셋째, 宋代 性理學의 사상을 표현한 작품들을 아울러 수록하였다. 《진보》의 편자는 기본적으로 유가적 宗經重道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히 周敦頤의 <愛蓮說>·<太極圖說>, 程頤의 <視箴>·<聽箴>·<言箴>·<動箴>, 張載의 <西銘>·<東銘>, 呂大臨의 <克己銘> 등 북송 理學 大家의 명작을 수록하여 儒道를 선양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진보》 선문의 최대 특징으로서 徐乾學의 《古文淵鑒》, 張伯行의 《古文載道編》 등 淸代의 일부 특수한 선집을 제외하고 후세의 일반 선집에서는 극히 보기 드문 경우이다.

넷째, 《진보》의 후집은 시대와 작가에 따라 작품을 배열하고 있어 여타 제 판본이 모두 문체에 따라 작품을 분류 배열한 것과는 크게 다른데, 여기서 우리는 조선간본의 편자가 각 시대별·작가별 작품의 사상 내용의 유형을 보다 중시하는 반면 각 문체상의 특징은 다소 경시함으로써 舊態를 벗고 참신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적지 않은 陶詩를 선록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도연명은 그 본인이나 작품이 當代에 결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며, 梁代의 蕭統이 비로소 그를 위해 평전을 쓰는가 하면 문집을 편찬하고 또 그 서문을 써서 크게 表揚하였다. 다만 소통의 《문선》에 수록된 도연명의 詩는 겨우 8수에 지나지 않아 謝靈運의 시 42수, 顏延之의 시 21수보다도 적다. 대개 《진보》의 唐代 이전 작품의 선록은 기본적으로 《문선》을 근거로 하였는데, 《진보》에 수록된 28수의 당대 이전 詩作 가운데에는 도연명의 시가 15수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그의 문학 珍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前人을 능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자못 독특한 일면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진보》의 선문상의 결함을 분석하기로 한다.

첫째, 작품 분류의 기준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못하다. 《진보》는 詩選과 文選의 전·후 兩集으로 나뉘어져 있으나, 굴원의 <離騷經>과 한무제의 <秋風辭> 등의 운문을 오히려 후집에 수록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데, 이는 아마도 단지 그 文體名에만 근거한 탓이 아닌가 하나, 그것은 또 元稹의 <連昌宮辭>를 전집에 배열한 것과 다시 불일치를 보인다. 그리고 전집의 分體上의 경계 역시 그다지 분명하지가 않다. 이를테면 前集 앞부분의 五·七言古風長·短篇 가운데에 그 뒷부분의 歌·行·吟·曲類의 작품<sup>16)</sup>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 近體의 절구·율시<sup>17)</sup>까지 함께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전집에서는 무리하게 詩體에 따라 분류를 함으로써 급기야 동일한 연작시의 개별 작품 사이에도 그 부류를 달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를테면 도연명의 <歸園田居> 3수와 <飲酒> 3수<sup>18)</sup>는 각각 모두 五古長·短 兩篇에 나뉘어져 수록되어 있다. 사실 《진보》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이루어진 선집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함들은 어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둘째, 일부 중요 작가의 작품이 누락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송대 陸游의 詩와 曾鞏의 文이 바로 그것이다. 육유는 남송의 가장 걸출한 시인인데다 그의 애국적인 시풍은 그야말로 심금을 울려 유가의 충군 애국 사상을 발양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진보》의 편자가 南宋末의 애국 문인인 文天祥의 <六歌>와 謝枋得의 <菖蒲歌>를 기꺼이 선록하여 애국사상을 고취코자 한 이상 마땅히 육유의 시작품을 수록하였어야 할 것이다. 증공은 당송팔대가의 한 사람인데, 《진보》의 편자가 당송의 古風 문학을 특별히 중시하면서도 증공의 산문을 한 편도 선록하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다.

16) 예를 들면 班婕妤의 <怨歌行>, 謝朓의 <鼓吹曲>, 李白의 <子夜吳歌>, 孟郊의 <遊子吟> 등이다.

17) 예를 들면 柳宗元의 <江雪>, 賈島의 <訪道者不遇>, 이백의 <山中答俗人>, 崔顥의 <登黃鶴樓> 등이다.

18) 그 가운데 五古短篇 <飲酒> 2수는 詩題가 <雜詩>로 잘못되어 있다.

셋째, 일부 작품의 作家名를 잘못 附記하였다. 이를테면 전집에서 도연명의 <四時>·<問來使>·<歸田園>, 沈約의 <長歌行>, 李鄴의 <讀李斯傳>, 이백의 <淸江曲>, 송지문의 <有所思>, 張穀의 <行路難> 등은 모두 그 작가의 眞僞를 명확히 분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그 이름을 부기하고 있는데, 독자가 문학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서 그 작가의 생애 사적에 대한 올바른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볼 때, 이와 같은 작가의 誤記는 독자를 誤導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다.

넷째, 상술한 바와 같이 《진보》의 勸學 趣旨는 확실히 두드러져서 全書를 관통하고 있는데, 다만 권두의 <眞宗勸學文> 一篇은 글공부를 하면 능히 입신 현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을 강조 신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보다 열심히 공부하기를 권고하고 있어 자칫 世風을 誤導한다는 혐의를 벗을 수가 없다. 《진보》의 편자가 기왕에 孔門 儒術을 중시한다면 “굳이 세속적인 ‘이로움’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何必曰利?)<sup>19)</sup> 朝鮮朝 《退溪先生言行錄》 권5 <論科擧之弊>에 이르기를 “선생께서는 《고문진보》 전집을 가르치실 때는 반드시 <진종권학문> 일편을 제외시키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 일편을 책머리에 놓았는가? 옛사람들의 권학 규범은 본시 이러하지 않았나니 어떻게 利欲을 자극하는 말로써 사람을 권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셨다.”(先生授古文前集 必遺眞宗勸學文, 曰: “……何以首此? 古人勸學之規, 本不如是. 何用取利欲之說, 以勉人乎?”)<sup>20)</sup>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퇴계 이황 선생은 이미 이 일편이 옛사람의 권학 규범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을 위한 敎本에서 제외시켰으니, 분명 그 고결한 품덕과 남다른 식견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19) 《孟子·梁惠王上篇》.

20) 李家源 : 앞의 책, 336쪽에서 재인용.

## IV. 《古文眞寶》의 選文에 대한 《昭明文選》의 影響

상술한 바와 같이 《문선》 이후 《진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간행된 많은 선집은 대부분이 詩 혹은 文의 장르별 단일 선본이었다. 그러나 《진보》는 오히려 시문을 兼選함으로써 시·문의 단일 선본이 갖는 제방면의 국한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체제는 물론 《문선》의 선례를 따른 것이며, 그밖에도 《진보》의 선문에 대한 《문선》의 영향은 적지 않다. 이제 그 면면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진보》와 《문선》은 모두 시문총집인 관계로 그 書名 중의 ‘文’은 곧 시(운문)와 문(산문)을 아울러 지칭하며,<sup>21)</sup> 그것은 산문만을 일컫는 ‘문’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달라서, 이를테면 姚鉉의 《唐文粹》, 呂祖謙의 《古文關鍵》, 樓昉의 《崇古文訣》 등등의 선본 題名 중의 ‘문’과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둘째, 《문선》은 周代에서 梁代까지의 총 700여 편의 문학 작품을 수록하였는데, 《진보》(조선간본)는 주대에서 남송까지의 총 373편의 시문 작품을 선록하였다. 다만 《진보》의 선문 중점은 당송 兩代에 두어져 있어 梁代 이전의 작품은 단지 총 52편만을 수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문선》에 이미 수록된 작품이 모두 32편에 달하면서 대개 《진보》의 당대 이전 작품의 선록이 기본적으로 《문선》에 의거하고 있다는 후세 논자들의 주장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간본 후집을 제외한 《진보》 제판본의 작품 배열이 모두 文體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선》과는 상호 일치하면서 일반 선본이 대개 시대에 따라 작품을 배

21) 《문선》의 ‘文’은 물론 文飾을 가한 ‘華靡한 言辭로 풀이할 수 있으나(胡德懷, <論《文選》的實際編撰與選文標準>, 趙福海 等 主編: 앞의 책 참조), 그 의미를 廣義의 ‘文’으로 즉 운문과 산문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또한 아니 될 것도 없다.(王慶元, <阮(元)章(炳麟)二家關於《文選》選文標準立異的評議>, 같은 책 참조)

열한 것과는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진보》의 文體別 명칭(특히, 당대 이전 작품의) 역시 기본적으로 《문선》의 선례를 따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셋째, 이제 두 選本에 수록된 작품의 標題와 작가의 記名을 살펴보면, 우선 《진보》에서 작가의 기명은 字를 많이 쓰고 名을 적게 쓰며, 어찌다가 號(단, 당대 이전의 작가는 한 사람도 호를 쓴 경우가 없음)나 帝號, 官名을 쓰고 있어 전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작가의 기명이 《문선》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자를 쓴 경우로는 曹子建, 陶淵明, 謝玄暉 등이 있고, 명을 쓴 경우는 李斯, 賈誼 등이 있으며, 제호나 관명을 쓴 경우로는 漢高祖, 漢武帝, 班婕妤 등이 있다. 한편 이 두 선집에 수록된 동일한 작품의 題名은 상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이한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가운데 두 편의 제명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진보》의 前集 권2에 수록된 도연명의 “雜詩二首”는 《문선》 권30 雜詩下에 수록된 도연명의 “雜詩二首”와 동일한 작품인데, 이 두 수는 곧 《陶靖節集》 권3 <飲酒> 詩의 第5, 7 二首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5수는 도연명의 가장 대표적인 詩作임을 감안할 때 그 詩題의 잘못된 표기는 분명 이해하기 힘든 것이며, 또한 심히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착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진보》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착오는 바로 《문선》을 맹종한 소치가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진보》의 전집 권3에 수록된 한대 악부시 1수를 보면 시제가 “樂府上”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제는 마땅히 <飲馬長城窟行>으로 표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바로 《문선》 권27 “樂府上·古樂府三首” 가운데 제1수로 《문선》에는 그 제목이 <飲馬長城窟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진보》의 편자가 《문선》을 근거로 이 작품을 선록하면서 자칫 잘못하여 그 소속 類別인 “樂府上”을 그만 시제로 삼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선》 권28에는 또 “樂府下”의 표제가 있는 것을 보면 소위 “樂府上”은 작품의 題名이 아니라 바로 詩體 유별로서 “樂府”의 “上”·“下” 구분일 따름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다. 한편 조선간본 《진보》의 전집 권3

“樂府上”題下の注에 이르기를 “고악부 3편 가운데 이 작품이 그 첫머리에 있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였는데, 원제목은 <음마장성굴행>이다.”(古樂府三篇, 此篇居首, 故曰上, 本題曰<飲馬長城窟行>)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보》의 표제로서의 “樂府上” 중의 ‘上’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결코 타당한 견해가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하의 주 자체는 여전히 《문선》에 근거해 이른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상의 몇 가지 예는 모두 《진보》의 편자가 그 선문 및 편찬 과정에 다소 치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로부터 《진보》의 편자가 얼마나 《문선》에 의지하였는가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진보》에 대한 《문선》의 영향이 여기서 더욱 명확해진다.

넷째, 중국 고대 문학의 변천 과정을 縱覽해 보면 육조시대의 문인들은 문학의 독립성과 예술성을 한껏 제고하여 육조를 유미주의 문학의 흥기 및 극성 시기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서는 뜻있는 문사들이 부단히 출현하여 外華內空의 유미 문학을 반대하며 시문의 복고와 혁신을 주장 추진함으로써 당대는 육조 文風에 대한 혁신 시기이면서 고대 문학의 황금 시대로 탈바꿈하였다. 이어서 송대에는 문인들이 당대 사람들의 문학 성취를 바탕으로 혹은 새롭게 開創하거나(즉, 宋詩를 두고 이름) 혹은 계승 발전시킴으로써(즉, 宋文을 두고 이름)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성취를 이룩하였다.

이미 상술하였듯이 대개 《진보》의 편자는 이같은 前代의 문학 변천의 맥락을 간파하고 문학의 浮靡함을 반대하고 시문의 言志를 제창하는 입장에 서서 당대 문학의 복고·혁신의 전통과 송대 문학의 계승·발전의 성과를 특히 중시하며 고아한 문풍을 숭상하였는데, 이러한 문학 관념의 핵심은 바로 전통적인 유가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진보》의 편자가 보여준 孔門의 관점에 입각한 勸學의 취지나 한유의 <原道>를 비롯한 유가적 議論文과 송대 大儒의 성리학 관련 문장의 大量 選錄은 하나의 문학 선집으로서 《진보》가 갖는 유가적 사상 경향의 의의를 엿보기에 충분한데, 그 연원은 곧 《문선》에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가 있다.

《문선》은 그 선록 작품의 제재와 내용이 실로 광범위하고 풍부한데, 全書에는 유가사상을 반영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도가사상을 반영한 작품이 있고, 또 불가사상을 반영한 작품도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래도 유가사상이 보다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sup>22)</sup> 더욱이 그 작품의 구체적인 사상 내용 방면에서도 또한 유가적인 정치 교화의 내용과 그 功用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는바,<sup>23)</sup> 전술한 바와 같이 《문선》에 대한 《진보》 편자의 태도는 자못 의지하고 본받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수록 작품의 사상 내용상의 유가적 경향에 있어서도 양자간에 또한 일정한 영향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섯째, 문학 작품의 예술 성취 방면에 있어 《문선》은 文彩 즉 어휘의 화려함과 성률의 조화를 중시하였는데, 이러한 선문의 기준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육조 유미 문풍의 영향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시대적 국한성이 매우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문학 선집의 편찬 목적은 대개 고금의 精華를 선록하여 今·後世 문인 학사의 闕讀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문선》과 《진보》도 결코 예외가 아니며, 각 선집은 모두 그 나름의 선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피차간에 반드시 상동하지는 않으며, 많은 부분이 각기 그 특유의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의 편자가 견지한 문학 작품의 예술 성취 방면의 編選 입장은 기본적으로 文彩之作을 배척하고 言志之作을 숭상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격률의 엄정함을 보이는 謝靈運의 작품은 한 수도 수록하지 않은 반면 평담하고 자연스러운 도연명의 詩篇은 적지 않은 작품을 선록하였는데, 이 점은 바로 《문선》과 상반되고 있어서 곧 《진보》가 《문선》의 속박을 벗어난 일면을 보여준다. 다만 그 예외적인 경우로 약간의 駢體美文을 兼選한 것 외에도 《진보》의 편자는 質朴無華한 民歌의 가치를 흡수하여 全書에 수록된 240여 수의 시가 작품 가운데 민가는 단 5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두 가지 경우는 모두 《진

22) 趙福海, 《昭明文選研讀》(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1. 6.) 394 쪽 참조

23) 張啓成 外 譯注, 《文選全譯》(貴州 貴州人民出版社, 1994. 11.), 前言 참조

보》의 예술 방면의 기본 편선 관점과 명백히 상충되는 반면에 《문선》과는 상통하고 있어 그 영향 관계를 짐작케 한다.

## V. 맺음말

《진보》는 중국문학선집사상 《문선》 이후 흔치 않았던 시문총집으로서 ‘고문’의 敎本 내지 讀本으로 편찬되었다. 따라서 그 選文의 기본 입장은 대개 문인 학사나 일반 初學者들에 대한 勸學과 敎導를 염두에 두고 있어 實際 선문에 있어 자못 당송 문학에 편중되는 일면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가능한 한 全面성과 典範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장과 관점은 그 선문상 갖가지 특색을 띠게 하였고, 그리하여 몇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문사들이 애독하는 선본의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진보》는 중국 고대 시문총집의 創始之作인 《문선》의 상당한 영향하에 편찬된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에 있어서의 《진보》의 지위는 현재까지도 거의 중국에 있어서의 《문선》과 흡사한 것으로서 漢學 전문가나 학습자의 독본으로 중요시되고 있어 그 의미를 더해 준다.

### < 參考文獻 >

- 《原本備旨懸吐註解古文眞寶集》(서울: 世昌書館), 1966.  
 《古文眞寶諺解》(서울: 高麗書林), 1986.  
 金時俊 역, 《古文眞寶》(서울: 正韓出版社), 1977.  
 한무희·송정희 공역, 《古文眞寶》(서울: 明知大學出版部), 1979.  
 金學主 역, 《(新完譯)古文眞寶》(서울: 明文堂, 前集 1986, 後集 1989).  
 박일봉 역 《古文眞寶》(서울: 育文社), 詩篇 1988, 文篇 1991.  
 韓武熙 역, 《古文眞寶》(서울: 惠園出版社), 1991.

- 성백효 역, 《(懸吐完譯)古文眞寶》(서울: 전통문화연구회), 1994.
- 김달진 역, 《古文眞寶》(후집)(서울: 문학동네), 2000.
- 이장우 외 역, 《古文眞寶》(전집)(서울: 을유문화사), 2001.
- 久保天隨, 《古文眞寶新釋》(日本, 博文館)
- 昭和漢文叢書, 《古文眞寶新譯》(日本, 弘道館)
- 星川清孝, 《古文眞寶》(日本, 明治書院)
- 佐藤保·和泉 新譯, 《古文眞寶》(日本, 學習研究社)
- 李家源, <<古文眞寶>간행 年代 是非>, 《朝鮮日報》 1973년 11월 6일  
자 문화면
- 金學主, <朝鮮時代刊行 中國文學 關係書 研究>, 《東亞文化》26, 1988.
- 拙 稿, <試論韓國版《古文眞寶》>, 《<昭明文選>與中國傳統文化》(아래  
참조), 2001. 6.
- 拙 稿, <試論《古文眞寶》與《昭明文選》之關係>, 中國文選學研究會, 《文  
選與文選學》(北京: 學苑出版社), 2003. 5.
- 拙 稿, <略論《古文眞寶》散文篇的思想內涵>, 《長春師範學院學報》22:  
2, 2003. 6.
- 張啓成 等 譯注, 《文選全譯》(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4.
- 趙福海 主編, 《昭明文選譯註》(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4.
- 中國文選學研究會 編, 《文選學新論》(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7.
- 鄭州大學古籍所 編, 《中外學者文選學論集》(北京: 中華書局), 1998.
- 趙福海 等 主編, 《<昭明文選>與中國傳統文化》(長春: 吉林文史出版社,  
2001.
- 趙福海, 《昭明文選研讀》(長春: 時代文藝出版社), 2001.
- 謝冰瑩 等 註譯, 《新譯古文觀止》(台北: 三民書局), 1977.
- 闕助吾 等 譯註, 《古文觀止》(第3版 長沙: 岳麓書社), 1991.
- 정용수, 《韓國 漢文學 研究의 基礎》(부산: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  
원), 1993.
- 김 영, 《朝鮮 後期 漢文學의 社會的 意味》(서울: 집문당), 1993.

이가원, 《燕巖小說研究》(서울: 을유문화사), 1978.

王 洪 主編, 《古代散文百科大辭典》(北京: 學苑出版社), 1997.

長谷川水, 《中國の古典名著》(日本, 凸版印刷株式會社), 1993.

### <中文提要>

《古文真宝》(以下简称《真宝》)是中国选本史上具有较高价值的一部诗文总集, 大约编成于元初. 之後元明二代曾经风行一时, 而明末後在中国逐渐消失, 到近现代就湮没无闻. 不过, 《真宝》早已流传到韩日两国, 至今还在广泛流行, 而且韩国朝鲜刊本《真宝》(即《详说古文真宝大全》)又颇有异于他本的特徵, 值得一顾. 本文就其选文的各个方面进行探讨, 以期进一步理解古代文士的志向观念.

其一, 试论《真宝》选文上的基本观点. 第一, 《真宝》的编者基本上立足孔门教人以修养德行为本而以求取知识为次的观点, 以初学之教本与後学之读本编成载道之“古文”选集, 极力劝人“行有余力则以学文”(《论语·学而》). 故编者特将八篇历代著名“劝学文”置于全书卷首以明示其意. 第二, 《真宝》的编者尤尚唐宋文学的古雅之风, 因而其选录的唐宋诗文特多, 此又异于以後风靡有明一代的“文必秦汉·诗必盛唐”之复古风气, 可见其颇有见地. 第三, 重视选文的全面性, 此大约由其劝学之观点而来, 即欲为初学後学之“学文”, 照顾全面. 第四, 重视选文的典范性, 此亦本于其劝学之见. 《真宝》的编者就尽量挑选典范名篇佳作, 以便读学者既能学习各种诗文的典型作品而得以进步, 又能欣赏多数作者的代表作品而获心得.

其二, 试析《真宝》选文的特色和瑕疵. 先就其特色而言, 大约可以提到如下几点: 即 ① 附加训解注释. ② 特列<诸贤姓氏事略>於前集目录下, 以简介其前後集所收作者. ③ “又且参之以濂溪关洛性命之说.”(朝鲜朝·金宗直《详说古文真宝大全跋》) ④ 後集按时代和作者排列其作品, 迥异於其他诸版本按文体为之分类. ⑤ 选录陶诗不少, 比起《文选》还多. 至于其瑕疵, 即如

① 在分类标准上不尽科学. ② 某些重要作家的作品未能入选, 如宋代陆游诗和曾巩文即是也. ③ 某些作品的作者有误. ④ 《真宝》的“劝学”之旨确实突出, 但全书之首篇〈真宗劝学文〉宣扬读书能立身显达, 享受富贵荣华, 以此劝人为学, 有误导世风之嫌.

其三, 试谈《文选》对《真宝》选文等方面的影响. 尽管《真宝》在某些方面超越了《文选》, 但是它在书名·作品标题·作者署名·文体分类编排以及选文观点上, 或明显或隐约地体现出它与《文选》之间的影响关系.

《真宝》的选文主要是基于对文士·学人的劝学·教导观念而为, 所以, 虽有一些缺点, 但它仍能受到很多人的重视, 尤在韩日两国终为汉学必读书.

주제어: 朝鮮刊本《古文眞寶》, 選文, 觀點, 勸學, 特色, 瑕疵, 《文選》

